

애호박 한묶음 전년보다 7000원 ‘뚝’

공급과잉에 과채류값 지속 하락...지역 농가는 소득 하락 우려

이달들어 주요 과채류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와 애호박, 풋고추를 비롯해 딸기와 참외, 수박 등 대다수 과채류가 따뜻한 날씨 덕분에 생육이 좋아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과채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농가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 따르면 이달 취정 오이는 출하 비중이 큰 전남지역의 단수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 상당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 2만18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1만8000원 선에 형성될 예상되고 있다. 백다다기 오이도 충청·호남지역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좋아 이달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전년 3만800원보다 떨어진 상품 100개에 2만9000원 이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애호박 출하면적도 3% 증가하고 병해충이 적은 데다 일조량이 증가해 적황이 좋아 단수 역시 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하량은 4%가 늘어나고, 대체재로 꼽히는 주키니호박 출하도 많아지면서 도매가격은 전년 1만7000원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1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고추의 경우 출하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4월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청양고추는 출하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하지만 생육이 부진했던 전년도보다 단수가 무려 7%나 증가하면서 전년 3만17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에 2만7000~3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풋고추도 최근 가격이 낮아 홍고추로 출하할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출하면적도 2% 감소하고 작황도 부진해 단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품위 저하와 오이맛고추 출하량 증가로 오히려 가격은 전년 3만5500원 대비 약 10% 상승한 상품 10kg 상자에 3만1000~3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딸기와 참외, 수박도 마찬가지다.

딸기는 신규 농업인의 진입과 기존 농가의 재배 면적확대로 정식면적이 늘어 출하면적이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으로, 단수도 작황이 부

진했던 전년보다 1%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딸기 도매가는 전년 1만4600원보다 낮은 상품 2kg에 1만1000~1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참외는 출하면적이 농가 고령화 및 타 작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하지만 전년 겨울철 한파와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착과율이 적었던 반면,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은 탓에 단수가 증가해 출하량은 무려 10%나 증가하게 된다.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난해 5만4600원에서 올해 상품 10kg에 4만8000~5만2000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수박도 출하면적은 비슷하지만 날씨가 좋아 단수가 증가해 출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전년 2620원 대비 낮은 상품 1kg에 2100~25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폭락을 면치 못했던 토마토 가격은 올해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져 당분간 오름세를 보이겠다.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5kg에 1만1000~1만3000원,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3kg에 1만2000~1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中 화해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 상승 코스피, 3.2% 상승하며 2200선 안착 한미 정상회담...대북주 재조명 기대

미국과 중국 제조업지표 호조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2주 연속 이어진 미중 연세 고위급 회담(베이징-워싱턴) 과정에서 화해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

국내 증시도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3.2% 상승하며 2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지수도 3.07% 상승해 751.7을 기록했다.

지난주 5일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52조원과 영업이익 6조2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반도체는 2분기에도 추가 실적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부진이 반도체에 국한되었고, 디스플레이와 통신이 개선되고 갤럭시S10의 성공적인 판매가 위안을 주었다. 삼성전자가 주가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금요일 하락이 미미했는데 낮아져 있는 현주가 수준에서 풍부한 현금자산을 이용한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의 상승이 돋보였다. 중국상해종합지수는 지난해 5월 말 정점 이후 하락을 했지만 4월동안 5.04% 상승하며 3246.57을 회복했고, 연초대비로는 30.2%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청신호가 나타나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중국 증시는 단기 급등으로 이격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MSCI 신흥국지수 중국 A주 반영비율 확대, FTSE지수 편입 등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역협상 타결 이후 위안화 강세 기대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입이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1년 넘게 진행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확대시켰는데 이제 타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역협상 타결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한 미국과 중국은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풍부한 유동성을 확대하며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협상 타결 이후에도 정책 지속이 필요하며 정책 전환이나 축소될 경우에는 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기업별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업종의 실적 감소 영향이 크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실적에 따른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슈보다는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지수 상승에 따른 대형주의 강세보다는 업종별 순환매와 종목장세가 지속되고 10일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대북 관련주는 이용한 트레이딩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귀어귀촌 교육 집에서 받으세요”

해수부, 오늘부터 온라인 교육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귀어·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8일부터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가르치는 이론 과정이다. 현재 5일 과정의 종합교육과 하루 과정의 주말 교육이 운영 중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귀어·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로 제한돼 있는 데다, 횡수도 제한적이라 많은 희망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온라인 과정 도입으로 편하고 쉽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5과목이며 수료 후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발급하는 11시간 교육 이수증을 받는다. 교육신청은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QR code and social media links for Kwangju Ilbo News on Facebook and Facebook.



김석기(왼쪽 두번째) 본부장과 박미하(왼쪽 세번째) 풍양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영농자재 종합서비스 발대식' 이후 농기계수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농기계 대여·영농지원 해드립니다”

영농자재 종합서비스 발대식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흥 풍양농협에서 '영농자재 종합서비스 발대식'을 열고 부족한 인력지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등 영농지원 활동을 펼쳤다.

영농자재 종합서비스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농기계수리 불편 해소와 영농편의

를 위해 열렸으며, 전남농협 농기계기술자 40명이 2개 수리반으로 편성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예취기 등 영농현장에서 고장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한 점검과 고장수리는 물론, 자체 정비 및 안전관리요령 교육도 병행했다.

또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0개 지역농협에서는 농기계 없는 농가에게 농기계를 대여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농

촌인손을 해소하고자 농작업을 직접 대행해주는 등 영농지원도 펼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어 애로가 많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 강화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원적외선파동)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